



한겨레21



구독중

한겨레21

✓ PiCK ⓘ

청와대-국정원-고용부-국민노총 그리고 영수증



본문듣기 · 설정

기사입력 2020.05.18. 오전 10:37



공감



0

요약봇^{Beta}

가가



[한겨레21] [표지이야기] 2011년 노조조직률 높
아질 것을 우려해 밀어준 제3노총,
고용부 제안하고 국정원 예산 지원하면서 추진

사법대처비 결과보고서

사업명	신노사문충 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동절서 구축	
기간	2011. 4.4~4.8	
예산집행 내역	수령액	집행액
	15,700,000원	15,700,000원
집행개요	현금 집행	

현금 영수증
금영 원정 인백희심 반원 정
생기 금액은 인수하였음으로
공정하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동계 대정부 투쟁전망 및 대책 ○ 주요 사기업의 인노총 탈퇴 추진동향 파악 ○ 4.27 제보선 관련 노동계 폭언동향 수렴 	
담당관	



국가정보원이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에게

고용부, 제 3노총 출범추진관련 당원의 예산(3억원) 지원 문의

2011.2.25

□ 이시밀 지전 은 2.24 당원 I/O에게

- 최근 대통령께서 임태희 실장·박재완 장관에게 노총·민노총을 뛰어넘는 제3노총 출범지원을 지시하신 바 있다며
- 제 3노총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사무실 마련이 급한데 고용부 예산은 철저하게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다며
 - ※ 제 3노총은 서울에도 연세강동임 가 주도하고 있고 이동걸 고용부 이 육영 지전
- 黨院에서 사무실 임대·집기류 구입·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
- 자신이 내주초 임태희 실장에게 그간 경과를 보고하고, 임 실장이 黨院 지휘부에 제차 제 3노총 지원건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

□ 검토 의견

- 노총 정책연대파기 선언(2.24) 등으로 제 3노총 출범·육성 필요성이 강해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필요
- 다만 黨院 독자적 3억원 전액 지원은 제 3노총 출범을 주시하고 있는 노동계에 노출될 경우 '검은 돈' 의혹 제기 등 파문 가능성도 상존
- 따라서 黨院의 직접 예산 지원보다는 경총·상의 등 경제계를 통한 우회적 지원이 바람직

‘勞總 위원장 선거’ 면밀 관리로 안정적 노사관계 공고화

- 내년 1.25 실시 예정인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장석춘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(12.1) 이후 군소 입지자가간 **합종연횡** 모색 등 물밑 움직임 치열
 - 선거인단 3,000명(포함된 200명당 대의원 1명씩 할당, 여성 30%)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
- 이용득 前위원장은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복수노조·타임오프 관련 현장 불만을 의식, 집행부를 맹비난하며 노조법 전면 **재개정**을 공언
 - 同名은 총리실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보도(11.22)에 격앙, 정부·집행부에 대립각
- **現집행부인 김주영(부위원장)·문진국(대시노련)·백한기(사무총장)** 등은 출마의지를 표출하면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내부조율을 모색
- 이밖에 **양병민(금융노조)·배정근(공공연맹)**은 내부 지지층 미약으로 직접 출마보다는 부위원장직 배려를 요구하며 유력후보들과 거래 시도
- 한편, **勞總**내에서는 自·他薦 입지자가 많아 선부르게 예단할 수 없으나 **張**위원장이 선거후 **막후 영향력**을 행사할 수 있는 김주영(부위원장) 등을 집중 지원, 이용득 前위원장과 2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

➔ **反집행부** 당선시 그간 어렵게 쌓아온 **산업현장** 안정화에 걸림돌 우려

- ① **黨政**은 노총 집행부에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단일화 없이는 이용득 前위원장 등 **反집행부**에 역부족임을 들어 적극적인 **중재 노력** 당부
 - 이용득에 대해서는 11.26 선거 출마를 위해 **우리은행(임원대우)**을 퇴사, 중소기업 노조에 가입하여 신분위장한 사실 등을 공세 자료로 활용
- ② 노총 출신 **여당의원**들을 통해 강성 집행부 출범시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**임금지원(2년간 135億원)** 중단 가능성을 시사, 노총내 **강경파**를 압박

※ 배 포 : 대통령실장, 정책실장, 민정·경제·고용복지 수석

노조조직률이 높아질 것을 우려 제3노총인 국민노총 지원
고용부가 국정원에 제안하고 국정원 예산 3억원 들여

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문건 및 링크의 한겨레21 기사 참조

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6/0000043182>